

# 금쪽상담소 상담 일지



이름: 전세연

학번: 2023517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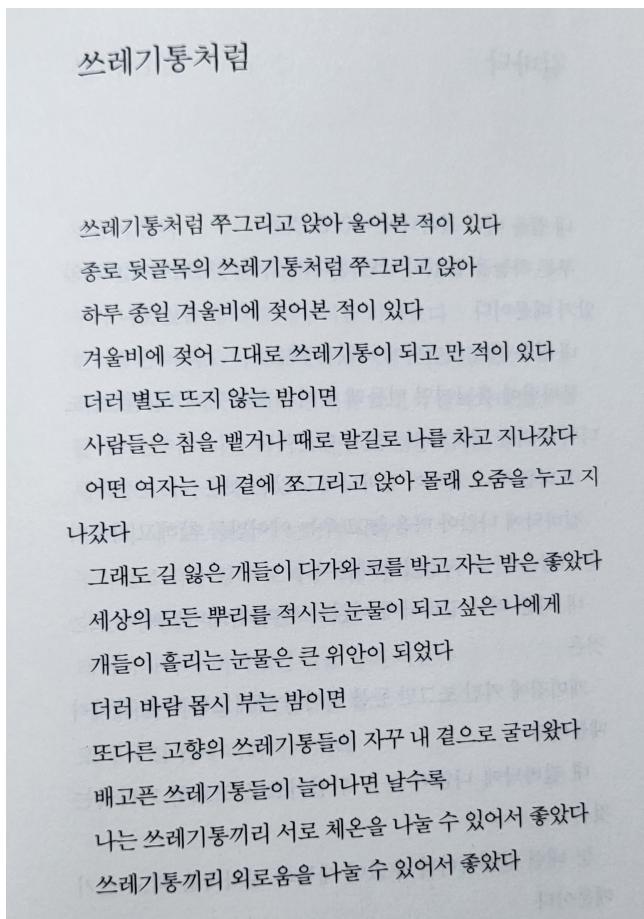
상담 일자: 10월 17일

## Q: 금쪽이의 고민이 무엇인가요?

A: 사람불신이 생겼다. 문화행사위원회로서 행사를 진행한 이후,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욕을 하는 에타 때문에 기분이 많이 나빠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 것 같다.

## Q: 금쪽이에게 어떤 시를 추천해 주었나요?

쓰레기통처럼



### 해석

1~6행: 현실이 쓰레기통 같은 화자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상황

7~15행: 비슷한 사람과 서로에게 위안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음.



금쪽상담소 소장(인)

## 선정이유

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시의 쓰레기통과 빗대어 생각해보면 공감도 되고, 나중에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.

## 고래를 위하여

## 고래를 위하여

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

푸른 바다가 아니지

마음속에 푸른 바다의

고래 한마리 키우지 않으면

청년이 아니지

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

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

아직 사랑을 모르지

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올라

별을 바라본다

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

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

## 해석

1연: 고래라는 존재가 열정, 도전 등 청년 시절의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들이라 생각하였다. 이런 것들이 바다, 즉 자신에게 있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않느냐는 내용이다.

3연: 고래가 수평선 위로 올라 별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번아웃이 온 것 같다 생각이 들었다. 잠시 지쳤을 때 별을 보며 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번아웃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다.

#### 선정이유

축제 당시 열심히 일한 뒤에, 번아웃이 온 듯한 고민을 알려주었다. 열정 가득하게 일을 하였지만,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지치는 것은 당연하기에 청춘에 관한 시를 선정하게 되었다.

